

발명 365

종이쇼핑백

미 국 필라델피아에 효심이 지극한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소년의 가정은 매우 가난했다. 어머니는 매일 가방에 물건을 가득 담아 상점에 배달하는 일을 했는데, 모친의 힘겨워하는 모습을 가슴 아파했다.

어느 날, 소년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종이 쪽지로 가방을 접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밑바닥이 네모난 '종이 쇼핑백' 이 만들어 졌다. 편리하고 가벼운 종이 쇼핑백은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소년의 가족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 때가 1887년이다. 이 소년의 이름은 찰스 스틸웰이다. 그는 '종이 쇼핑백' 의 발명가로 기록되어 있다.

어머니를 돕겠다는 순진한 마음으로 만든 상품 하나가 소년의 가정에 풍요를 안겨준 것이다. 부모님을 향한 효심은 하늘을 움직이고, 장수(長壽)와 풍요의 복을 받게 된다.

